

# 지구의 끝: 1974년까지의 대지미술U

ABROAD

2012 / 08 / 22

차예지

2012. 5. 27~9. 3 LA현대미술관(-  
MOCA)(<http://www.moca.org/land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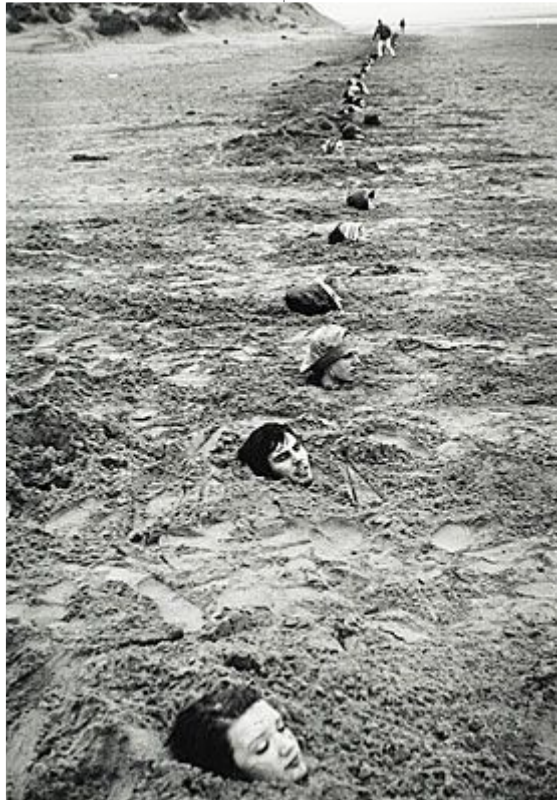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LA현대미술관(-  
MOCA)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4년까지의 대지미술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열렸다. 대지미술이 개념미술, 프로세스 아트,  
플럭서스 등의 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전시에 참여한  
80여 명의 작가들도 대지미술 영역에만 국한되어 활동하지는  
않는다. 이번 전시에는 대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리처드  
롱, 마이클 헤이저,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로버트 스미드슨을  
포함하여 존 발데사리, 요셉 보이스, 조안 조나스, 리처드 세라,  
데니스 오펜하임 등이 참여했고 플럭서스를 대표하는 오노 요코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전시 전경



크리스토티와 장-클로드 <포장된 해변> 1968~69



케이스 아넷 <리버풀 해변 매장> 1968